‘별들의 잔치’ UEFA 챔피언스리그 개막

유럽 최고 축구 클럽을 가리는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2018~2019시즌이 18일 조별 리그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유럽 32개 팀이 참가하는 챔피언스리그는 8개 조별 리그를 통해 16개 팀을 추려낸 뒤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결정한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회에 출전하는 32개 팀은 매년 집계되는 UEFA 랭킹에 따라 각국 리그별 출전국 수를 결정한다. 스페인·잉글랜드·이탈리아·독일 리그는 올 시즌 UEFA 랭킹 1~4위로 각 4개 팀이 출전한다. UEFA 랭킹 5위인 프랑스는 3개 팀이 출전했다. 올 시즌에는 15개국 리그 팀이 우승을 겨룬다. 전 세계 2억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결승전은 내년 6월 2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다.

남미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아시아엔 AFC 챔피언스리그 등 대륙별로 클럽 대항전이 있다. 하지만 세계 축구의 중심 유럽 무대에서 펼쳐지는 UEFA 챔피언스리그 위상과는 큰 차이가 난다.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 “챔피언스리그는 환상적인 대회다. 월드컵보다 큰 대회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아르센 벵거 전 아스널 감독도 “지상 최고의 축구를 보고 싶다면 챔피언스리그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클럽 축구가 대표팀 축구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화끈한 ‘돈 잔치’가 챔피언스리그의 위상을 말해준다. 우선 대회 출전 32개 팀엔 각각 1,525만 유로(약 1,800만 달러)의 참가비가 주어진다. 조별 리그 승리 수당은 270만 유로이며, 비겨도 90만 유로를 받는다. 16강, 8강, 4강 진출 수당은 각각 950만 유로, 1,050만 유로, 1,200만 유로다. 거기에 우승팀은 1,900만 유로, 준우승팀은 1500만 유로를 가져간다. 예를 들어 한 팀이 조별 리그에서 4승2무의 성적을 거두고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한다면 각종 마케팅 관련 수익을 제외하고 대회 성적만으로 7,885만 유로를 벌게 되는 것이다.

박성현 “2년 미국 활동 성적은 70점”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박성현(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 2년을 돌아보며 자신의 성적은 70점이라고 말했다.

2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박성현은 전날 경기도 용인시 88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총상금 8억원)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2년 전 LPGA 진출을 두고 고민했는데 돌아보니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경기할 수 있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우승이 굉장히 어려울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작년 2승, 올해 3승을 했으니 생각보다 잘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70점이다.” 라고 덧붙였다.

2013년 KLPGA 정규투어에 데뷔한 박성현은 2017년 LPGA 투어로 진출해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 공동 수상 그리고 상금왕을 따내며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신인으로 올해의 선수를 동시 석권한 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9년 만의 대기록이다. 신인이 상금왕을 차지한 것도 2009년 신지애 이후 8년 만이었다.

올해도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 포함 3승을 거뒀고, 지난 8월 21일 다시 세계랭킹 1위를 탈환해 지금까지 여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유독 기복이 심한 경기를 펼치고 있어 우려는 낳고 있다.

최근에는 16일 끝난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노렸으나 컨디션 난조로 컷 탈락했다.

박성현은 “나의 경기에선 언제나 기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면서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올해는 정말 황당할 정도다. 하지만 내년 시즌엔 다를 것” 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레이커스 유망주들, 그들은 굶주려 있다”

“LA레이커스는 배움에 굶주려 있는 팀이다.”

이번 여름 레이커스로 팀을 옮긴 르브론 제임스(34)의 말이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제임스는 그간 마이애미 히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등에서 리그 수준급 선수들과 함께 했으나 레이커스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르브론을 제외하면 레이커스에는 스타급 선수들이 없는 형편이다.

대신 론조 볼(21), 브랜든 잉그램(21), 카일 쿠즈마(23), 켄타비우스 콜드웰 포프(25) 등 어린 선수들이 주축으로 활약 중이다. 이 때문에 르브론이 있다고 해도 레이커스가 우승에 도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르브론은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어린 선수들과 함께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며 “많은 선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론조 볼을 비롯해 쿠즈마, 잉그램, 콜드웰 포프 등은 배움에 굶주려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한다. 이는 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르브론은 “새 시즌 챔피언에 도전하는 일을 새로운 팀, 젊은 팀에서 하게 됐다.” 며 “아직 서로 어색한 부분이 있으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넘어야 한다는 목표는 똑같다. 이것은 NBA 팀들이 매 시즌 가지고 있는 목표다. 우리 역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할 것이다. 나 역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2003년 클리블랜드 전체 1순위로 지명된 르브론은 NBA 15시즌을 뛰면서 올스타 14회, NBA 우승 3회, MVP 4회, 파이널 MVP 3회 등의 성적을 남겼다. 지난 시즌에는 데뷔 후 처음으로 82경기 전경기에 출전해 평균 득점 27.5점, 리바운드 8.6개, 어시스트 9.1개를 기록했다.